

2028학년도부터 대입제도 바뀐다

내년 상반기 시안 마련, 2024년 2월까지 확정
자문회의 첫 회의...교육학자 등 각계 21명 참여

정부가 2028학년도 대학입학 제도 개편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교육부는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논의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21명으로 대입정책자문회의를 구성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현재 중학교 1학년 학생이 고교에 입학하는 2025년에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면 이에 맞는 대입을 치러야 하는 만큼 2028학년도 대입 제도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정시·수시 전형 등 현재의 대입 체제와는 다른 틀로 개편될

예정이다.
대입 4년 예고제에 맞춰 개편안은 2024년 2월까지 확정돼야 한다.
교육부는 대입정책자문회의의 자문, 학생·학부모 대상 의견수렴, 정책연구 등을 거쳐 2023년 상반기까지 '대입제도 개편안 시안'을 마련한 후, 2024년 2월까지 개편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출범이 늦어지고 있는 국가교육위원회가 발족하면 의견수렴 등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해 협업할 예정이다.
자문회의 첫 회의에서는 교육부-대입

정책자문회의의 간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 수립 추진 일정을 공유하고, '미래형 대입제도의 방향'을 주제로 자문 위원들의 자유 토의가 이루어졌다.
자문회의는 김현영 강원대 총장을 의장으로 하며 교육학자, 학계, 입학전문가, 고등학교 교사, 시도교육청 장학사, 입학사정관, 언론인 등으로 구성됐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이규민 원장도 참여한다.
김 의원은 "미래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미래형 대입제도를 구상하는 데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학계 인사로 신성한 국민대 자동차공학 학과 교수, 조영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박주용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교수, 기업인으로 김정 코드스쿼드

대표, 이소영 마이크로소프트 이사 등 과학기술 등 산업계 관련 다양한 인사가 포함된 것이 눈에 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신성한 교수는 혁신공유대학 참여 경력이 있고, 박주용 교수는 빅데이터, 조영태 교수는 인공지능 전문"이라며 "대입 개편 추진에 있어 학령인구 감소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을 것이라 봤다"고 설명했다.
수능 개편과 관련해서는 현행 유지부터는·서울형 수능 도입, 수능 자격고사화 등 대대적인 개편이 오랫동안 거론돼 왔으나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도 많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대입제도 개편안 범위 등을 정해놓고 있지는 않다"며 "첫 회의에서는 방향과 관련해 폭넓게 들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市, 성수품 등 추석명절 물가안정 집중관리

민생경제대책본부 회의... 착한소비 캠페인 등 추진

광주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성수 물품을 중심으로 물가안정 집중관리에 나선다.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광주대인 시장 상인회교육관에서 5개 자치구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 등 23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민생경제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물가안정·민생대책을 논의했다.
시는 지난 22일부터 물가 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원산지·가격표시 미이행, 담합에 의한 가격인상 등 불공정 거래를 중점 지도 단속하기 위한 물가안정대책반도 구성·운영 중이다.
참여 기관들은 착한 소비 캠페인, 로컬푸드 직매장과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성수 식품 특별 점검, 식품접객업소

위생 점검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날 회의 이후에는 김광진 문화경제부시장과 회의 참석자들은 대인시장을 방문, 명절 대목을 맞은 전통시장 상인들과 소통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김광진 문화경제부시장은 "민족 최대 명절을 맞아 광주시민들이 성수품 구매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시에서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대형마트, 전통시장 상인뿐 아니라 전 시민이 물가안정 정책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7월8일 고물가시대 지역경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경제단체, 유관기관과 함께 민생경제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물가안정 100일 대책과 무더위에 지친 시민 건강 지원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박선강기자

▶1면 '광주에 롯데월드'서 계속

패밀리랜드 면적은 22만9천31㎡(약 7만평)로 신세계가 밝힌 스타필드 광주 어등산 부지 29만7천500㎡(약 9만평)에 비해 비교적 작다. 다만 인근 동물원과 경관녹지 등 우치공원 일대를 확장하면 규모는 훨씬 커진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패밀리랜드 실사는 복합쇼핑몰 부지 확장이 아닌 검토 차원"이라며 "광주시에 복합쇼핑몰 건립 방향 및 추진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만큼 구상안 발표 역시 추석 이전엔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과 지방선거를 통해 불붙은 광주복합쇼핑몰 유지는 지난달 현대백화점그룹이 '더현대 서울'을 능가하는 대규모 미래형 문화복합몰 가칭 '더현대 광주'를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현안으로 대두됐으며 지난 17일 신세계그룹이 호남권 첫 스타필드와 기존 광주 신세계 확장 등 '매머드급 동시 개발' 카드를 제시하면서 경쟁 구도가 본격화됐다.



호주 상공서 공중급유 훈련
대한민국 공군이 호주에서 열고 있는 다국적 연합훈련 '피치블랙(Pitch Black)'에 처음으로 참가한 가운데 KF-16 4대와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KC-330) 1대가 호주 다윈 기지와 엠블리 기지에서 각각 이륙한 후 현재 적용 공중 급유 훈련을 하고 있다. 공군은 다음 달 7일까지 피치블랙 훈련에 참가해 주·아간 항공차단, 공세·방어제공, 공중급유 등 실질적인 연합공중훈련을 통해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향상할 계획이다. <공군 제공>

道, 전남형 공공산후조리원 3개소 확대

120억 투입 추가 설치... 지난해 904명 이용

전남도는 30일 "저출산 극복과 출산 후 쾌적한 양육서비스 환경 개선을 위해 전국 최초로 추진한 전남형 공공산후조리원이 산모들로부터 호응을 얻어 120억원을 투입해 3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지난 2015년 전국 최초로 해남 종합병원에 공공산후조리원 1호점을 설치했다. 이후 2018년 강진의료원, 2019년 완도대성병원, 2020년 나주 빛가람중

합병원에 총 4개소를 개소했다. 지난 3월에는 순천 현대여성아동병원에 5호점을 임시 개원했다.
이러한 가운데 전남형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남지역 출생아는 8천430명으로 전국의 3.2% 규모다.
이중 출산 후 도내 산후조리원(민간 병원 포함) 이용자는 5천96명(60.5%)으로 나타났다. 전남형 공공산후조리원 이

용자는 904명(17.7%)으로 2020년(382명)보다 3배 가까이 늘었다.
이에 따라 도는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2-2023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3개소를 확대 설치함으로써 산후조리서비스 질을 높여 쾌적한 보육환경을 제공할 방침이다.
현재 전남공공산후조리원은 5개소로 거점별로 고루 분포해 전남 전 지역 산모들이 30분 이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이 가능해져 쾌적한 출산서비스 혜택을 톡톡히 누리고 있다.

저렴한 이용료와 수준 높은 서비스, 깨끗한 시설로 도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어 지난 2021년 1호점 개원 이래 2021년 기준 2천800명의 산모가 이용했다.
도는 공공산후조리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연말까지 공정한 선정 절차를 거쳐 도내 거점별로 대상지를 결정해 설치할 예정이다.
김영록 지사는 "민선 7기 전국 최초 전남형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의 도민에게 수준 높은 복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시작됐다"며 "민선 8기에도 저출산 극복과 200만 인구 회복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면서 도민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출산환경을 만들기 위해 도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본은진기자

道, 국산콩 우수 생산단지 모집

농식품부 경진대회 추천 내달 16일까지 접수

전남도는 30일 "농림수산식품부 주관 '제2회 국산콩 우수 생산단지 선발대회'에 참여할 도내 우수 생산단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국산콩 우수 생산단지 경진대회는 국산콩 생산단지의 전문화와 조직화를 유도하고 고품질 다수확 생산기술 등 우수 사례를 전파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개최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2번째로, 지난해 '제1회 국산콩 우수 생산단지 선발대회'에선 영암 군서농협과 장성 황룡강 위탁영농법인 2개 생산자가 장려상을 받았다.
참가 자격은 정부지원 논 콩 전문생산단지 또는 공동영농면적이 10ha 이상이고 콩 재배면적이 5ha 이상인 농협과 농

업법인이다. 참가를 바라는 단체는 단지 운영 실적과 콩 다수확 안정생산체계, 수확 후 안정적 판로 확보 실적 등을 시·군 농정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 기한은 오는 9월 16일까지다.
도는 시·군에서 추천한 우수 생산단지를 서면 심사와 현장 심사해 9월 말까지 총 4개소를 선정, 농식품부에 추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시·도 추천을 받아 전문평가단을 구성하고 오는 12월 우수 생산단지 9개소를 최종 선발할 방침이다. 대상 1개소는 농식품부장관상과 상금 1천만원, 우수상 3개소는 농촌진흥청장상과 상금 각 500만원, 장려상 5개소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장상과 상금 각 300만원이 주어진다. /본은진기자

박민식 보훈처장, 오늘 광주 방문...5·18민주묘지 참배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사진)이 31일 광주 오월어머니집을 방문한다.
국가보훈처는 30일 박 처장이 처음으로 광주지역 보훈 현장을 찾아 보훈 가족들을 만난다고 밝혔다.
박 처장은 특히 (사)오월어머니집을 방문해 배식 봉사활동을 벌이는 등 어머니들과 소통하며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되새길 예정이다.
박 처장은 또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등 올해 공법단체로 출범한 5·18 관련 3개 단체장과 함께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한다.
아울러 광주 서구에 거주하는 5·18민

주화운동 희생자 자택을 방문해 민주유공자 명패 달기 행사를 하고 위로의 마음을 전할 계획이다. 이후 광주지방보훈청을 찾아 직원들을 격려한다.
박 처장은 "민주화의 성지 광주"를 찾아 보훈가족들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되새기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며 "5·18민주유공자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복기자

광주매일신문
"좋은 生活, 사랑받는 廣告인내"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매일신문 廣告. 사랑받는 廣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리겠습니다.
광고문의 및 출장접수
▶광고국/☎ 650-2099 650-2071~2 F. 650-2016
▶시내지역 및 각 지방지사

구독신청 배달사고 문의 650-2022

광주 아시아문화전당 메인상권 빌딩급매
○ 중심상업지역 역세권 코너 유동인구 엄청
○ 대지 810㎡ 9층건물
○ 급매68억(보3억1,000월3,600)부가세별도
***** 주차빵빵, 월세빵빵, 월세는 지정일자에 통장바로 입금됩니다 돈 벌어주는 귀한 빌딩입니다.**
급히구합니다 = 조건맞으면 바로 계약합니다
상가빌딩, 상가주택, 모텔, 가든, 나대지, 야영장, 창고부지, 물류센터부지 등등 찾고있습니다.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대표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N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기입구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

부실 채권 못 받은 돈 회수 전문
판결문, 공증, 공사대금, 각서 계약서, 입금내역, 각종 채권상담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할 수 있음
채무자 재산, 신용, 주거래은행, 차량 등 파악 실거주지 파악, 법인회사부도시 회수 가능
연락두절 채무자 파악 개인 법인 신용조사 재산조사시만 별도가능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원모집 신입·경력사원 영업팀 / 채권추심팀
▶지시오피 상담▶
절차적 편의 법적차 준수 시간적 효율
호남지사 062-417-4731
(주)제이엠신용정보
채권추심 전문법인